

창간18주년기념

# 기획 특집 수입개방시대 개막, 우리가 살 길은?

우리는 이렇게 수입 개방 파고를 넘겠다.

## 가족 전업농



김성곤 영천지부장  
(황정농장)

저희 농장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658번지에 있는 황정농장입니다. 가족은 저희 부부와 장남 부부와 손자 차남 및 삼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1982년도 모돈 10두에서 지금은 모돈 250두 가지고 있는 3000두 규모의 농장입니다.

지난 1982년도에 이곳에서 저희 농장은 처음에는 사과밭으로 출발하여 복합영농을 하기 시작하여 퇴비를 만들기 위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가족 전업농이 되었습니다. 저희 농장은 처음에는 잔반을 갖다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여 왕겨도 갈아 먹이며, 단미 사료도 사서 배합해 먹이기도 하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경험이 없어 돼지 질병이라는 것은 다 맞고 돈사도 여러차례 부수고 고치며 정말 시행 착오가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의 양돈도 공부하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재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농장 경영도 선진국처럼 사양관리는 주간관리, 수정은 인공수정, 기록은 전산관리, 질병차단은 소독에서 예방차원으로 백신을 빠짐없이 하고 있으며 질병이 생기면 수의과학연구소 및 유명한 교수분에 의뢰를 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여 저는 학계 및 약품회사, 사료회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는 빠짐없이 다니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와 감각을

익히며 있고 장남은 선진국 견학, 차남은 연구회 연수, 이렇게 우리 가족도 선진양돈을 접목 시킬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사 관리도 분만실과 자돈실은 삼남이, 육성사와 비육사는 차남이, 임신사와 종부는 장남이 이렇게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식사도 한자리에 모여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양돈 사육방법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여 3년 전만 하더라도 PSY가 16두 하던 것이 지금은 약 22두까지

하여 여지껏 15년동안 돼지를 키워도 적자 속에 허덕이다가 지금은 농장이 흑자로 돌아 왔습니다. 저희 가족노동은 지금까지 실력을 쌓아 왔기 때문에 전면개방이 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노동만은 어느 농장에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은 '96년도에 가족들 덕분으로 축산인의 최고 영예의 상 양축가상 석탑산업훈장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더 노력하여 모든 축산인

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농장은 15년동안 돼지를 키우면서 작년도 부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돈은 과학양돈이며 경영이 필히 필요하며 오직 기록만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돈은 희망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정농장도 열심히 하여 더욱 더 경쟁력 있고 훌륭한 양돈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팩스 있으십니까?

###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 ✎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